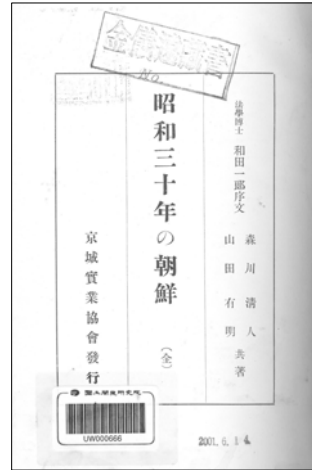


36 昭和三十年の朝鮮 1955년의 조선

1927년 / 森川清人(모리가와) · 山田有明(야마다 아리아케) / 316면 / 14,10-09 산73소 1927

이 책은 1927년 森川清人(모리가와)와 山田有明(야마다 아리아케)의 공동저작인데 30년 후, 즉 1955년을 목표연도로 잡았다. 저자의 전공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和田一郎(와다 이치로)박사가 서문을 썼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두 저자의 수준도 짐작할 만하다.



일종의 미래예측인데 예언으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보다 장래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일종의 이상(理想)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내용 가운데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사실도 있다.

일례를 들면 30년 후에는 서울-부산 간을 5시간에 주파할 특급열차의 출현이 그것이고, 구(舊) 경성제국대학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경성제국대학은 당초 일본에 있는 제국대학과 같은 규모와 수준으로 건설키로 하고 당시 총장과 주요 교수들까지 내정한 바 있었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것이 중간에 방침이 변경되어 일본에 있는 제국대학과는 약간 다른 모양의 대학으로 변모하였다. 내용인즉 당초는 일본과 같이 소학교에서 대학까지의 정연한 형식에 기초하여 설립을 서둘렀는데 일부에서 하나의 대학보다 100개의 소학교 증설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밀려 당초 설립계획이 사치시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경성대학은 당초에는 의과 외에 법문학부를 추가한 3개 학부가 있는 종합

대학에 불과하였다. 이 당시 경성대학에 예과(豫科)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조선에 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대신하는 기능을 하였다. 법문학부는 조선문화가 동양문명사에 어떠한 지위를 점하는지에 대한 연구, 다시 말하면 동양문명에 관한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각광받았다.

이밖에도 농림과, 수산과 및 공과 등의 설치로 조선의 부원개발(富源開發)에 필요한 최고의 과학연구소가 되었다. 특히 공과대학은 석탄공업과 수력발전의 성장에 순응하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발전했다.

한편 조선이 100년 후에는 훌륭한 임야국(林野國)이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원시림지대는 앞으로 300년 간 벌목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67개 뗏목을 연결하는 수상뗏목열차의 출현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30년 후 일본으로 연간 1,640만 석쯤 되는 쌀을 수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